

인간과 하천

1

River & Culture



이 자 영 | (주)ED환경디자인 팀장  
(jy3331@hanmail.net)

## 영산강, 마한의 중심 그리고 남도의 젓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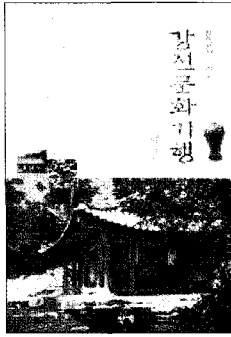
문명의 발전은 물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세계 4대문명 역시 강을 끼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역시 역사를 들추어 보면 한강이나 낙동강, 또는 영산강이나 금강과 같은 큰 물줄기를 중심으로 수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다. 오늘은 그중에서 영산강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한다.

### 영산강, 남도의 젓줄

흔히 영산강을 '남도의 젓줄'이라고 한다. 여기서 남도는 전라남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의문점 하나. 전국의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충청남도에도 남도가 있고, 경상남도에도 남도가 있으며, 북에도 평안남도와 함경남도가 있는데 어찌하여 전라남도가 그중에서도 '남도'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마도 그만큼 전라남도의 문화, 예술, 정치 등에 있어서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고장이기에 가능하리라... 실제로 길가다 한번쯤은 마주했을 '남도맛집'에서 남도는 분명 맛있는 음식이 유독 많은 전라남도를 의미하니 말이다. 어디 맛집만 그럴까. 남도민요, 남도기행, 남도소리, 남도문학 등... 남도는 그야말로 다양한 테마로 알려져 있다.



남도민요 남도기행을 주제로 한 책들. 일반적으로 '남도'는 전라남도를 의미

돌아가서 젓줄이란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새끼가 어미의 젓을 먹고 하나의 온전한 생명체로 성장하듯이 그만큼 중요하고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의미, 즉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남도에 있어서 젓줄이라는 영산강은 도대체 어떤 강일까?

### 영산강에 존재했던 고대왕국

3-7세기에 고구려, 백제와는 다른, 영산강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고대왕국이 있었음을 우리는 영산강 주변 유적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발굴된 복암리 고분 제3호분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한 고분 안에서 옹관묘, 목관묘, 수혈식 석곽묘 등 다양한 형태의 무덤들이 4기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는 복암리 고분을 타 지역 고분들과 구분 짓는 획기적인 형태로 일명 '아파트고분'이라고도 불린다. 시간이 되면 이 아파트고분을 주제로 KBS 역사스페셜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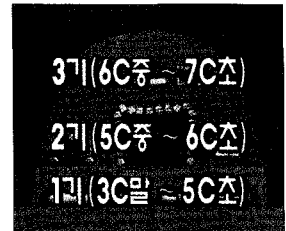
그냥 좀 큰 무덤이네 하고 지나치기에는 그 의미가 깊다. '최초 발굴 나주 아파트고분의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의 내용을 빌어서 전하자면 유물들은 대개 3-7세기에 걸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무려 약 400년에

걸쳐 제각기 다른 형태의 무덤들이 3층의 아파트 형태로만 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들로 미루어 볼 때 무덤의 주인들은 유력자나 수장급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고분내 발견된 유물들 중 금동식리, 철지금동장삼염형십자문경판비 등을 보면 이러한 유물들이 백제 유물로 분류되는 것들과는 확연히 계통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산강 주변의 고분 유적을 통해 그 당시 이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는 백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영산강에 강한 세력을 지닌 고대왕국이 있었으며 영산강 유역의 고분은 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역사스페셜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이 지역의 대형 고분들은 수장급의 무덤들이다. 이 세력은 백제와 버금가는 강력한 세력이었다. 이 지역엔 철이 풍부하고 강과 너른 평야가 있어 나주세력이 성장하기 좋은 조건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후기 마한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것이 이 지역에서 대형 고분들이 발견되는 이유다. 이 후기 마한 연맹체는 단순한 부족국가가 아닌 고대국가 이전까지 발전했다.'



중국, 일본과도 활발한 교류를 했던 나라, 마한. 마한 사회는 강과 바다를 통해 여러 나라와 교류하며 발전했다. 6세기 경 백제에 복속되기까지 마한은 어떠한 나라였을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 역사를 구분할 때 3~6세기를 삼국시대로 생각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만 생각하는 데, 영산강 유적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는 삼국이 아닌 마한이라는 나라의 시대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 마한

누구나 학창시절 마한에 대해 스쳐 배운 기억은 날 것이다. 마한, 진한, 변한으로 묶여 삼한이라고도 했던가... 우리가 마한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호 대한민국을 곱씹어 보자.

‘大韓民國’

여기서 다른 글자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 ‘韓’이라는 글자는 어디에서 왔을까?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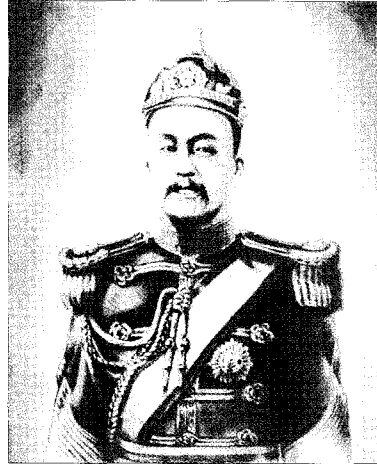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전 국민이 붉은 악마가 되어 목 놓아 외쳤던 구호였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한국, 한국인, 한반도 등의 단어를 너무나 자주 그리고 쉽게 쓰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의 기원과 유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대개 나라의 이름을 정할 때는 과거의 화려했던 나라의 역사를 담고 그와 같이 될 것을 염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1948년 제헌의회에서 제정된 국호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유래를 추적하면 또 하나의 대한민국(1919년, 임시정부)과 대한제국(1897년, 고종황제)이 등장한다. 대한제국(大韓帝國)에서 ‘제(帝)’를 ‘민(民)’으로 바꾼 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고종은 왜 국명을 조선(朝鮮)에서 한국(韓國)으로 바꿨을까? 사료에는 “삼한(三韓)을 잇는다”(고종실록

는 대목이 나온다.



독일식 황제복을 입은 고종, 그로 하여금 국호를 바꾸게 한 삼한은 도대체 어떤 나라였을까.

이에 대해서 소설가 김진명 씨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자. “두만강과 압록강을 국경으로 두고 있었던 조선이 교착한 반도 남단에 움츠리고 있던 삼한을 잇고자 국호를 바꿨을까? 더욱이 고종은 당시 외세의 억압을 떨치고 조선의 기개를 펼치기 위해 칭제건원(稱帝建元)까지 했던 터였다. 어쩌면 삼한은 그전에 이미 한(韓)이라는 웅혼한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문득 들었던 그 ‘상식적 의문’이 나로 하여금 이 소설을 쓰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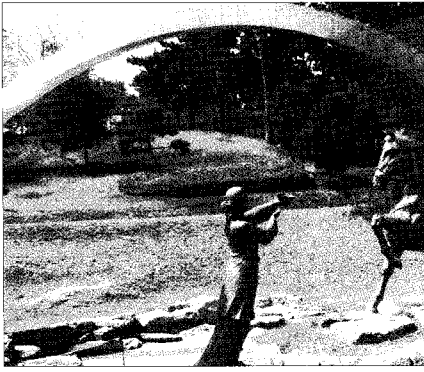
김진명씨는 대한민국의 유래를 찾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비록 그의 글이 소설(‘천년의 금서’)이라는 장르에 속하기는 하나, 그것이 전해주는 의미는 소설 이상의 것이라 보여진다.

여기서 마한이 어떠한 나라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한은(그리고 삼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나라였을 것이며, 그래서 삼한을 계승하고자 고종은 국호를 대안으로 바꾸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한의 역사, 문화의 중심에 바로 영산강이 있었다.

필자는 또한 여러 역사적 사실들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추론해 본다.

영산강은 나라의 발전과 권력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데 그대표적인 예가 후삼국전쟁 때 서남해의



장화왕후  
(나주 오씨의 딸)와 왕건의  
첫 만남에 대한 전설이 깃들어  
있는 나주 완사천

제해권을 두고 벌인 전쟁이 바로 나주에서 있었다. 이 영산강은 한때 마한의 지배하에 마한의 발전에 있어서 젖줄 역할을 하였고, 이로써 마한은 한동안 영산강과 바다를 통해 강력한 국제교류국가로서 지위하였으나 결국 6세기경 백제에 복속되고 만다. 그러나 복속된 후에도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마한의 세력들은 그 튼튼한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체적으로 세력을 유지한 것 같다. 추후 실제로 나주지역의 강력한 호족가문이었던 나주 오씨 가문은 왕건에게 조력하고 딸을 왕후로 앉히는 등 고려 통일에 있어서 많은 공을 세운다. 실제로 호남의 서남해안은 중국의 장강 이남과 교류해 오던 곳으로 신라 말기 당나라와의 교역으로 경제력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선진된 문물을 흡수하고 있었던 곳으로 왕건에게 중요한 배후지역이었다.

또한 바닷물이 내륙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와 만들어낸 지형적 특성은 땅을 비옥하게 하고 장어와 같은 많은 먹을거리를 안겨주었으며 천일염을 만들어냄으로써 풍요로운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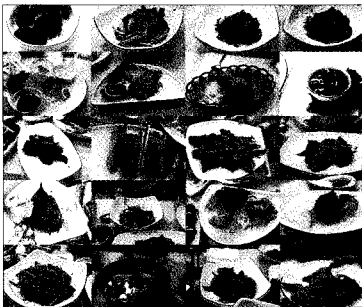
터전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남도인들은 찬란한 맛과 멋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결국 우리가 요새 말하는 남도문화는 대개 판소리, 음식, 가사문학 등 조선시대의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 뿌리를 살펴보면 이미 고대국가에서부터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마한이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그 문화적 뿌리는 아직 까지도 남도문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 영산강, 마한의 중심이었던 곳

앞으로 이 지역의 마한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지길,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또 거기서 많은 이야기보따리들이 생겨나길 바란다. 역사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 이야기말로 21세기 창의력 시대의 강력한 자산이니까 말이다. 🌐



풍요로운 삶을 바탕으로 꽃피운 다양한 남도문화